

구한말 서울 정동의 러시아공사관에 대한 복원적 연구

김 정 신*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발레리 알렉산드로비치 사보스텐코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전임강사)

김 재 명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주제어 : 구러시아공사관, 사바찐, 정동, 고종

1. 서론

정동 15-3번지 정동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적 제253호인 구러시아공사관은 조선 고종 27년(1890년)에 건축된 벽돌조 르네상스풍의 건물로서 설계는 러시아인 사바찐이 했다. 을미사변 때 고종 황제가 세자(순종)와 함께 옮겨와서 잠시 피신했던 ‘아관파천’의 장소이기도 하며, 한국전쟁으로 파괴돼 탑만 남아 있던 부분을 1973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했다.

구러시아공사관 건물은 자국의 양식으로 지은 최초의 공관건물이자 국내 몇 안되는 개항기 서양식 벽돌조 건물로 역사적, 건축사적 의미가 매우 높은 건물이다. 그러나 신빙성 있는 자료(문서, 도면, 사진)가 별로 남아있지 않고, 주변 개발로 인해 유구 또한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 원 모습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문서(배치도)¹⁾가 발견되었고, 사바찐의 생애에

대한 새로운 연구²⁾가 발표됨으로써 구러시아 공사관의 원 모습은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그간의 연구 성과와 새롭게 입수된 자료를 토대로 건립당시의 러시아 공사관의 배치, 형태, 구조, 규모 등 원형을 밝히고 내부 공간구조를 추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아관파천 시 고종이 머물렀던 방의 위치와 구조, 지하통로의 용도 등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2. 건립배경과 훼손, 변천과정

2-1. 건립배경과 과정

조·러수호조약이 비준되고(1885. 7.) 러시아 임시대리공사 베베르(К.И. Вебер)가 도착

1)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세르게이 쿠르바노프 교수가 주한 러시아 외교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로 공사관과 주변의 배치도인데 복사한 것을 재복사한 것이다. 외교문서로 실명은 모두 지워져 있다.(2010 한러수교 20주년 기념전 도록, 『다시 만나는 이웃 러시아』, 2010에서 전제)

2) 따찌아나 심비르제바, 스페틀라나 레보쉬코, 「조선 국왕 폐하의 건축가 사바찐(1860-1921)」, 국제한국사학회 세미나, 2009.

* 교신저자, 이메일: kjsdk@dankook.ac.kr

함으로써 러시아 공사관이 개설되었으며(1885. 10. 14), 러시아는 1888년 8월 20일 체결된 조·러통상조약에 명시된 영사관 설치규정에 따라 공사관과 정교회외 부지로 정동 상림원(上林園) 일대의 땅을 확보했다. 경운궁의 후원인 상림원은 새문안길 남쪽의 언덕으로 흥천사와 이웃하였다.

임시건물에 입주해 있던 베베르 공사는 1886-1887년間に 공사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일본인 건축가 쯔고(Tégo)를 초빙해서 설계도를 작성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해 공사 착공이 연기되었다. 1890년 4월 초 베베르공사는 본국 외무성에 재원문제를 다시 제기하였으며³⁾ 사바전에 의한 설계도는 1890년 7월초에 완성되었다.⁴⁾

외무성은 베베르 공사가 보고한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보아 요구금액보다 훨씬 적은 32,500달러에 승인하였으며, 예산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격조 높은 아름다운 청사를 짓는데 성공했다.

3) 베베르가 외무성에 보낸 서한은 다음과 같다. : “새로 작성된 설계도에 대해 본부에 보고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계도는 러시아 청년 세레진-사바전씨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서울 왕궁에서 조선 국왕을 위해 두 층으로 된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도쿄에서 초빙했던 일본인보다 그가 더 열성적으로 일을 수행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게다가 공사관을 러시아 사람이 건립한다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관 건물의 설계도는 전에 보내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다른 건물들은 설계도면을 다시 작성해서 구조를 단순화시켰습니다. 이 건물들의 구조가 우아하지 못하더라도 공사관의 온건한 기준대로 지을 예정입니다. 유일하게 소요되는 대경비는 견실들에서 대리석 벽난로를 설치하고 조각 나무로 마루를 까는 것입니다. 경비 총액은 51,442루블입니다.”(러시아제국 대외정책고문서보관소 <fond>191, <opis>768, <delo>191, <list>66-67, 따찌아나 심비르체바 외, 「조선국광 폐하의 건축가, 사바전(1860-1921)」 7쪽에서 재인용)

4) 러시아제국 대외정책고문서보관소 <fond>191, <opis>768, <delo>191, <list>75-77, 따찌아나 심비르체바 외, 「조선국왕 폐하의 건축가, 사바전(1860-1921)」 7쪽에서 재인용)

2-2. 대지와 주변

1890년대 러시아 공사관이 위치한 정동 15번지 주변은 원래 경운궁 후원인 상림원 터로 남서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북동쪽으로는 급한 경사를 지닌 낮은 언덕⁵⁾이다. 가장 높은 곳에 러시아공사관이 자리 잡았으며, 새문안 길에 면한 북쪽은 상림원의 녹지였으며, 북동쪽으로는 선원전⁶⁾ 구역, 동남쪽은 미국공사관 구역과 그 아래 ‘H.G.U.’s House’(13번지), 남쪽은 공관로(현재의 정동길) 남서쪽 경계는 조선황제에 속한 구역(현재의 프란치스코수도회), 서쪽은 러시아 정교회구역(현 경향신문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이 일대에서는 서쪽 건너편의 프랑스 공사관과 함께 가장 높은 건물로 어디서나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는 우월한 위치였다. 러시아 공사관 주변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 공사관의 정문(러시아 아치)의 왼편의 대지(정동 16-1번지)에는 당시 일차형 한옥이 있었는데 1898년에 고종황제가 손탁에게 하사하였으며, 공사관에서 쓰기도 하고 임대해 주기도 하였다. 1899년 당시는 스타인(Stein) 공사관 통역관과 학생 막시모프, 정교회 봉독자 크라신 신부가 기거하였다. 이 자리에는 1901년 경 양관이 신축되었고, 1901년 10월 17일 벨기에 영사관이 개설되어 1905년 회현동에 새 영사관을 지어 옮기기 전까지 벨기에

5) 공사관 건물이 위치한 지점은 공사관 정문(Russian Gate)이 있었던 지점(현 예원중학교 입구, 정동길에서 정동공원으로 올라가는 분기점)과의 고도차는 16.9m, 경향신문사 앞길과는 12m 차이가 난다.

6) 선원전은 조선왕조의 근원인 열성어진(列聖御眞)을 두는 곳으로 1900년 10월 13일 불에 탔으며, 1901년 7월 복원되었다. 1920년 헐려 창경궁으로 옮겨졌다. 1922년에는 이곳에 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가 건립되었고, 경기공립고등여학교, 경기공립여자중학교, 경기여자중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등으로 교명이 변경되었으며, 1988년 강남으로 이전하고, 현재는 공지로 남아있다.

영사관이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일제 때는 영어학교 교사 프램톤의 집이었다가 1923년 이후 이화여전 음악당으로 사용되었는가 하면, 해방 후에는 하남호텔로, 그리고 현재는 캐나다대사관 건물이 들어서 있다.⁷⁾

공사관 정문의 오른쪽 정동 13번지 일대는 언더우드(1959-1916)의 집이 있었던 곳으로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의 첫 글자를 따 'H.G.U.'s House'라고 불렀으며, 이 한옥 저택의 사랑방에서 1887년 9월 27일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새문안 교회(정동교회)가 시작되었다. 1895년 교회가 경희궁 맞은편으로 옮겨간 후에는 그레이스 하우스(Grey's House)가 되었고 감리교 여선교부의 소유가 되었다.⁸⁾ 현재는 예원학교가 들어서 있다. 그 위로 선교사 모ffet(Moffet, Samuel Austin, 1864-1939)의 집이 있었다.

공사관 오른쪽 9번지, 10번지 일대는 미국공사관의 영역으로 1884년 민씨 일가(민계호와 민영교)로부터 매입하였으며, 1897년 가을 러시아공사관과의 경계에 담장이 만들어졌다.

공사관 서쪽의 러시아 정교회구역(정동 22번지, 현 경향신문사 자리)은 1898년 마뉘닌(N. G. Matyunin)공사의 중재로 러시아가 매입하였으며 추가로 구입한 땅은 고종황제가 하사하였다하여 러시아의 니콜라이 II세 황제가 고종 황제에게 전문을 보내어(1898. 1. 23.)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열강들의 세력다툼 속에서 한·러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자 러시아 선교사들의 한국 입국이 어렵게 되면서 니콜라이 II세 황제는 공짜 땅을 거부했고 땅의 대금을 모두 환불했다(\$12,000-멕시코 달러, 1898.4.11).

7) 홍순민 외, 『서양인이 만든 근대전기 한국 이미지 I, 서울풍광』, 청년사, 2009, 114쪽.

8) 김정동,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발언, 2004, 146-148쪽 참고.

이 구역에 성당이 들어서기 전 먼저 선교부 건물이 1901년에서 1902년에 걸쳐 건축되었으며, 1902년 2월 17일 한국러시아정교회 성 니콜라스 성당이 축성되었다.⁹⁾

정교회구역 아래(정동 17번지, 현재 프란치스코수도회 자리)는 황제소유의 국유지였다. 당시 파리의방전교회의 코스트신부와 푸아벨신부가 2년간(1885.11-1887.11) 거주하였으며, 1920년대 초부터는 바오로수녀원의 고아원으로 사용하였다.

2-3. 설계자(건축가)

러시아 공사관의 설계자는 러시아인 사바찐(Afanasij Ivanobich Seredin Sabatin, 薩巴丁, 薩巴珍, 薩巴玲, 1860-1921)으로 알려져 있다. 사바찐에 대한 연구는 몇몇 논문을 통해 대략 밝혀진바 있지만¹⁰⁾ 아직 그의 건축전문교육과 러시아에서의 이력, 건축기술 수준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된 적이 없다. 다만 최근 러시아 학자 따찌야나 심비르제바(Simbirtseva Tatiana Mikhailovna)의 연구에 의해 사바찐의 가족과 학력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자료가 밝혀졌다.

그는 19세기 말 서양건축이 처음으로 도입될 개항기에 인천과 서울에 거주하면서 20여 개의 건물¹¹⁾을 설계하고 기술자문과 시공 감독을 하였다. 사바찐의 학력과 건축수련과정을 통해 그의 건축기술적인 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바찐은 1860년 우크라이나 뿔따바

9) 축성한 성당은 2층의 선교부 건물에 이어 증축한 임시적인 건물이다. 1903년 러시아인 건축가 꼬시아코프가 그리스 십자가형태의 비잔틴양식 성당을 설계하였으나, 러일전쟁, 볼셰비키 혁명 등으로 건축이 무산되었다.

10) 김정동, 앞의 책, 김태중, 「개화기 궁정건축가 사바찐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논문집, 12권 7호, 1996. 7

11) 현존하는 건물은 5개로 모두 훼손되었으나 부분 또는 전체가 복원되어 문화재로 지정, 보호 되고 있다.

(Poltava)주의 몰락한 지주 집안에서 태어났다.¹²⁾ 14세 때 상선단의 소년수부가 되었으며, 상뜨-뻬쩨르부르크에 있었던 항해사 양성 강습소(maritime classes)¹³⁾를 수료하였다. 지금까지 잘못 알려져 온 바와 같이 “2급 자격증을 수여하는 러시아 육군유년학교 공병과를 나왔다”¹⁴⁾는 것은 1895년 9월 그가 당시 조선에 신설되는 러시아어학교의 교사로 자신을 천거해 달라는 내용의 공사관으로 보낸 서한과 답변¹⁵⁾에 근거한 것 같다. 여기서 ‘2급 자격증’은 ‘항해사 양성 2급(근거리항행 상선 선장 및 원양항해사 자격)과정’으로 추정된다.

그는 상뜨-뻬쩨르부르크에 있으면서 뻬쩨르부르크 예술아카데미에 1년간 다녔다한다.¹⁶⁾

12) 사바쩨의 아들 뻬뜨르(1885-1964)의 자서전에 의하면 그의 조부(사바쩨의 아버지)는 양반가문(뻬따바주의 몰락한 지주) 출신으로 루브니시(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소도시)에서 부동산을 갖고 살았으며 가문을 상징하는 창(또는 화살)이 9개가 들어있는 방패모양의 문장까지 갖고 있었다고 한다. 조모(사바쩨의 어머니)는 까자크 출신의 우크라이나 여자였고, 어머니(사바쩨의 부인)는 러시아에 동화된 독일인이었다.(따찌아나 심비르제바, 스페틀라나 레보쉬코, 앞논문, 2009. 3쪽 참고)

13) 무역선의 항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1867년 러시아교육부 관할로 설치된 서열상 낮은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무상교육을 제공하였다. 교육내용은 1급(초급, 근해항해사 자격시험준비과정), 2급(중급, 근거리항행 상선 선장 및 원양항해사 자격시험준비과정), 3급(고급, 원거리항행 상선 선장 자격시험준비과정)의 세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건축과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지 않았다.

14) 김태중, 앞 논문, 110쪽

15) 당시 공사관의 “귀하를 천거하기가 곤란하다. 최소한 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인물을 필요로 한다”는 통지에 대한 답변에서 “본인은 본인에게 2급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의 증명서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러시아제국 대외정책고문서보관소, <fond>191(서울영사관), <opis>768, <delo>191, <list>25,27,28, 따찌아나 심비르제바, 스페틀라나 레보쉬코, 상게서 4쪽에서 재인용)

16) 사바쩨의 아들 뻬뜨르(1885-1964)의 자서전에 “부친은 원래 중등교육과정조차도 제대로 다 마치지 못한 모양이니까 독학으로 공부했다: 그는 항해사 양성과정만 수료한 것 같다: 뻬쩨르부르크 예술아카데미에 1년

이 예술 아카데미는 1757년 이래 조형예술분야에서 러시아제국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1859년부터는 회화·조각학과, 건축학과 등 두 개의 학과가 있었으며,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예비지식이 요구되었는데 사바쩨은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규수강생이 될 수 없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야간미술 강좌를 수강하였다.

그는 선박 항해사로 취업¹⁷⁾하였으며 승무원으로 일하는 동안 극동의 여러 나라들과 도시들의 건축문화를 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해로 진출하였으며, 자신의 독학, 통찰력, 개인적인 재능, 그리고 선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토목 기술자로 변신한 것으로 보인다.

비 유럽권에서 ‘건축’의 전문교육과 ‘건축가’라는 직업이 생겨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러시아에서는 뻬뜨르 1세때(18세기 초)이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20세기 초이다. 명동성당을 비롯한 교회건축의 설계자는 경리관계일을 맡은 아마추어 성직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이름 있는 공공건물들도 공식적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건립한 사례가 많았으며, 사바쩨도 그러한 사람들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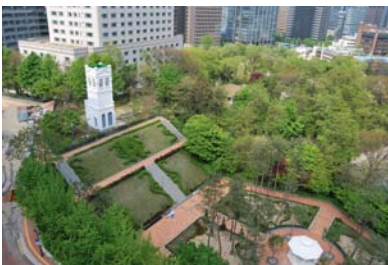
당시 각국 정부 혹은 상사의 초청으로 아시아 여러 지역의 거류지들을 유랑하며 일한 이들 서양 기술자들은 거류지 건축가(Colonial Architect), 또는 거류지 기술자(Colonial Engineer)라 불렸다. 이들에게 맡겨진 일은 도로 조성, 하천과 항만 준설, 거류지 계획과 측량 등이었으며 사바쩨도 ‘토목사’, ‘건축사’, ‘영

17) 따찌아나 심비르제바는 사바쩨가 공부하던 시기인 1878년 설립되어 1880년 초에 흑해 항구인 오데사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항구로 나가는 정규 화물 및 여객 운송을 하는 해운회사인 ‘도브로볼니 플로트’에 항해사로 취업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조사' 등으로 불렸다.

2-4. 훼손 및 수리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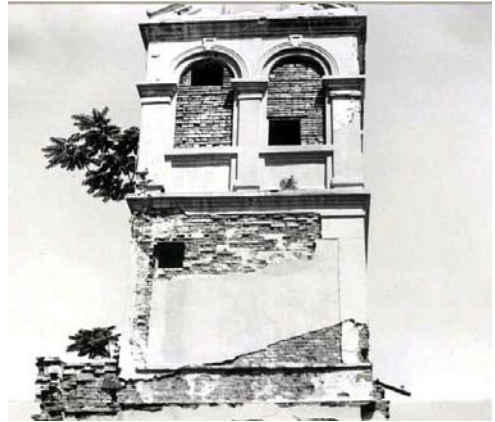
1890년에 준공된 구러시아공사관은 1895년 1차 수리하였으며, 1904년 러일전쟁으로 폐쇄되었다가 일본과 러시아가 국교를 열면서 다시 사용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1925년까지는 공식 영사 없이 공산혁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외교관들이 계속 살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1925년부터 1950년까지는 소련공사관으로 사용하였으며, 한국전쟁으로 심하게 파괴되어 탑과 지하 일부만이 남아있었다. 오랫동안 거의 방치되어 있다가 1973년에 탑만 복구되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으며, 1977년 사적 제253호로 승격 지정되었다.¹⁸⁾



<그림 1> 구러시아공사관 탑(현재모습)



<그림 2> 1963년경의 구러시아공사관(탑과 서측 아케이드 일부만 남아있고, 공사관 좌측 건물이 러시아정교회 선교부 건물이다.)



<그림 3> 1969년경 공사관 탑의 모습

1981년 공사관 유적을 발굴하여 지하밀실과 비밀통로를 확인하였으며, 동년 10월 건물을 재보수하고, 담장 및 경계석을 설치하는 등 주변을 조정하여 시민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1988년에 내·외벽과 창호 및 지하통로를 보수하였으며, 1995년과 1998년에도 또다시 건물 내·외부를 대대적으로 보수하였다. 그러나 간헐적인 보수과정에서 시멘트 몰탈의 덧칠과 도장으로 인해 오히려 내부 벽돌벽은 심하게 균열이 나타났고 붕괴의 우려마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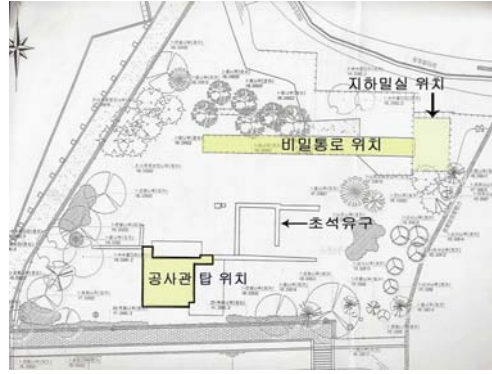
그리하여 2009년 다시 대대적인 보수¹⁹⁾를 시행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준공되었다. 이와 함께 경계 펜스와 주위 조정도 다시 가꾸고 소나무도 심어 최대한 주위 환경과 어울리도록 정비하였는데 현재 대지면적은 약 2500평으로 원래의 반 이상 줄었다. (사적지정면적은 3필지 1,102㎡(333.2평)) 서측과 북측 주변은 정동빌딩(3층-20층)과 정동 상림원(13층), 한진베르시움(18층) 등의 고층건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사이는 민자 유치 사업으로 정동공원이 정비되었다.

18) 한국 전쟁 후 이 곳은 전제민들의 무허가 판자촌이 되었는데 무려 약 3,000명이 거주하였다 한다. 무단 점유 20년이 되기 직전인 1969년 강제 철거하였다.

19) 이번 공사과정은 원형상태에서 내부 벽돌 2만5000개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수하는 오랜 시간과 기술을 요하는 난공사였다. 벽돌은 러시아산 적벽돌로 강도는 180kg/cm로 명동성당이나 번사장보다 다소 높았다.



<그림 4> 정동공원과 러시아공사관 탐



<그림 6> 지하밀실 및 비밀통로 위치(현황도)

3. 복원자료의 검토

3-1. 유구현황

1981년 발굴조사한 성과는 현존하는 탐과 탐 서측 약 5m, 동측 약 5m X 10m의 부속건물 외벽체 하부 줄기초 유구(화강석 지대석)와 동북쪽 20m 거리의 지하 3m 지점에 있는 지하밀실(7m X 4m의 장방형 평면에 돌과 적벽돌로 조적)과 지하통로이다.

지하통로의 폭은 45cm(상부는 1m로 V자형 단면), 길이 20.3m이다. 통로 중간지점은 폭 50cm, 길이 5m로 확장되어 있는데, 이는 통행인이 급히 왕래할 때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지하밀실 및 비밀통로의 유구

3-2. 지도 및 사진

당시 건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1900년 전 후의 사진 몇 장이 남아있다. 서울주재 외교관이나 선교사, 여행자들이 찍은 사진들이다. 특히 2010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전(2010. 9.28-10.12)에 전시된 사진자료 중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진과 알려져 있었지만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던 희미한 사진의 원본 복사 사진이 다수 공개되었다. 특히 러시아 표트르 대제 기념 인류학 민족지학 박물관, 이하 Kunstkamera 소장자의 사진은 해상도가 높아 건물의 재료와 디테일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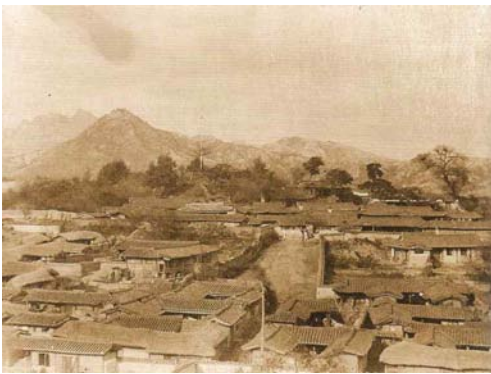
러시아 공사관 공사 직전 정동길 건너편의 이화학당에서 대지 전체를 조망한 사진(Kunstkamera 제공), 러시아 공사관 공사완료 후 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E. Burton Holmes, 1901), 동남측 경계의 돌담길에서 본 전경(프랑스 프랑델 공사의 후손 칼메트 소장), 이화학당의 언덕 위에서 멀리 바라본 사진(Lilias H. Underwood, 1904), 남서쪽에서 찍은 사진(L'illustration, 1904), 남동쪽에서 찍은 사진(Angus Harmilton, 1905), 1920년대에 찍은 근접 정면사진(러시아외교관 Sergei V. Thirkine의 사진, 타짜아나 제공) 그리고 한국 전쟁 후의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는 몇 장의

사진, 고종황제의 침실을 찍은 실내사진 등이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 제작된 서울시 지도(최신경성전도 1907, 용산 합병 경성시가지전도 1911, 경성시가지도 1927, 1933, 지번구획입경성전도 1946 등)에서도 그 배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지도는 개략 10,000의 1 축척의 지도로서 주요 공공건물은 검게 칠해져 있다. 한국전쟁 후에도 본관과 뒤편의 호위대 막사동(3개동)은 그대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9> 러시아공사관 전경(E. Burton Holmes 1901, 『Burton Holmes Travelogues』, 1920, 미국)



<그림 7> 공사 전 러시아공사관 대지 전경(Kunstkamera) 정동길(공관로) 건너 이화학당 언덕에서 찍은 사진. 대지에는 적잖은 한옥이 있었다.



<그림 10> 동남측 경계의 돌담길에서 본 전경(프랑스 프랑델공사 후손 칼메트 소장사진, 『다시 만나는 이웃』, 2010에서 전재)



<그림 8> 대지측량장면 사진(Kunstkamera)



<그림 11> 남측 전경 (L. H. Underwood, 1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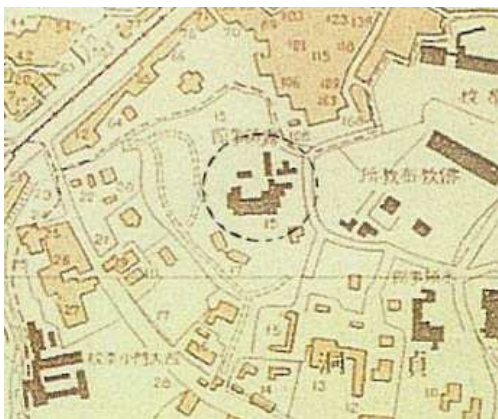


<그림 12> 남서측 전경 (L'illustration 1904)

탑에 게양된 깃발은 바다의 수호성인인 안드레아 성인의 순교를 상징하는 X형 십자가가 그려진 러시아 해군의 깃발이다.



<그림 13> 1920년대 초의 근점사진(러시아외교관 Sergei V. Thirkine의 사진, 타짜야나 제공) 정면 아케이드 아래에 창을 덧달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 지도상의 구 러시아공사관 (경성시기도, 1927)

이러한 사진자료와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3D 모형(한국콘텐츠진흥원 발주로 명지대학교 디지털 아카이빙연구소에서 제작)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2007년 문화원형 창작 소재 개발사업으로 수행된 "구한말 외국인 공간 정동"은 배치와 평면분석이 미흡하고, 디테일, 축척(scale)이 정밀하지 못하지만 구러시아 공사관 건물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림 15> 구러시아공사관 3D 모형(2007)

3-3. 문서·도면

러시아로부터 입수한 도면자료(각주 1)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와 공사관 구역"이란 제목의 이 문서는 공사관 구역의 배치도인데 각 실의 구획이 함께 표시된 평면도를 겸하고 있다. 축척바(scale)가 있고, 각실 및 구역의 이름이 한쪽에 적혀있어(실의 위치를 가리기 위해 모두 지워져 있다.) 각 구역의 용도와 내부 공간 구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또한 3 피트간격의 등고선과 주요 지점의 레벨을 원괄호 속에 피트로 표시하고 있어 대지의 높이를 정확히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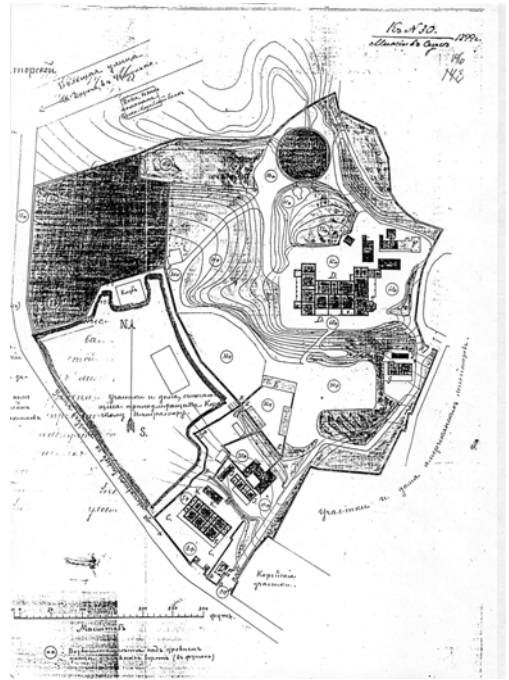
건물 윤곽선 내부와 실명 표기번호는 모두 지워져 있으나 옆에 기재된 실명을 판독하면(일부는 판독불가), 크게 '정교회 구역', '공사관 구역', '조선황제에 속한 구역'으로 표기하고, 공사관 건물의 실명으로는 '교회가 들어선

방, '현관', '객실', '식당', '응접실', '서재', '사무실', '침실', '다용도실', '비상용 방들(손님을 위한)' 등이 있고, 그 밖에 '호위대를 위한 공간들', '호위대장의 방', '공사관 비서가 쓰는 건물', '한국인 통역관이 쓰는 건물', '정교회 학생이 쓰는 방', '수위실', '공사관 정문' 등의 표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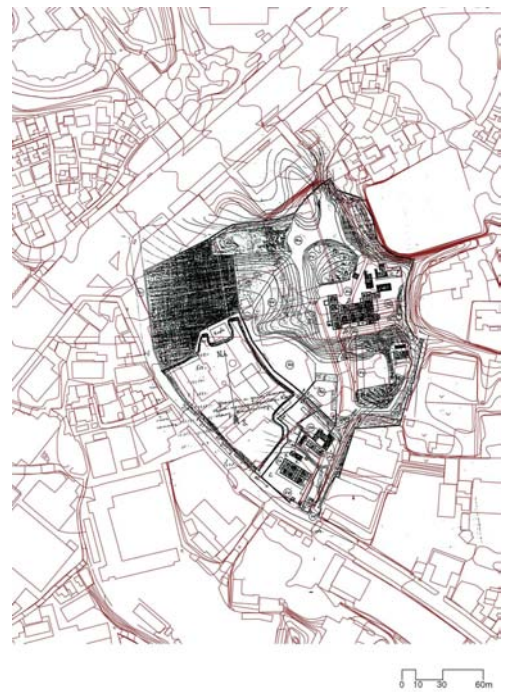
맨 위쪽의 길(새문안로)은 화살표와 함께 '제물포로 가는 길'로 표기되어 있고, 그 아래 네모칸 안에는 '한·로은행'이, 까맣게 지워진 '정교회 구역'(현 경향신문사 위치)과 그 아래 '조선황제에게 속한 구역'(현 프란치스코 수도원 위치) 사이의 네모칸 안에는 '클럽'이, 동측 경계선 밖으로는 '조선구역'(현 예원학교 위치)과 '미국공사관 구역 및 건물'이 표기되고, 정동길은 '화살표와 함께 '황제의 궁전으로 향하는 길'로 표기되어 있다.

이 도면은 1899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고종의 아관파천(1896. 2. 11 - 1897. 2. 20) 이후 한·러 관계가 최고조에 달하였던 시기이다.²⁰⁾ 현재의 지형도(갈색)에 러시아로부터 입수한 배치도(그림 16)를 겹치면 대지경계선과 탑의 위치, 건물 유구(초석) 위치 등이 정확히 일치한다.(그림 17) 동측 예원학교와 미국대사관 경계는 그때와 전혀 변화가 없는 반면 서쪽 부분은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도면은 건물 완공 9년 후에 실측한 도면으로 평면뿐만 아니라 주변배치가 매우 정확한 도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 러시아로부터 입수한 배치도(1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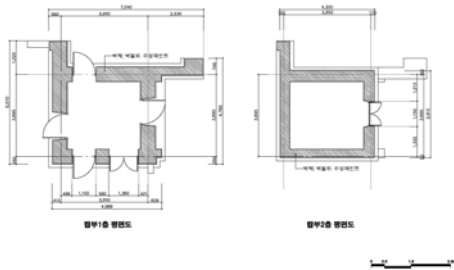


<그림 17> 위치 및 배치 확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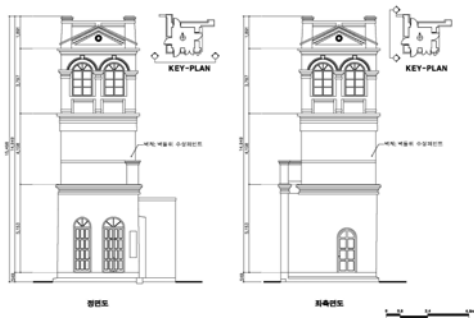
20) 당시는 러시아 정교회의 선교부가 발족하였으나 (1897. 7) 독립협회의 반러시아 운동과 고종황제가 선물한 정교회 부지문제로 공식적인 교회 설립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1899년 중반 수사 부제 니콜라이 알렉세예프가 교회집기를 갖고 들어와 공사관에 머물면서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다.

3-4. 실측 및 보수설계도

현존하는 탑 부분은 1981년 보수 시 정밀 실측한 바 있고, 1995년, 1998년, 그리고 2009년 보수시의 보수설계도와 사진자료가 있다. 따라서 그림 16의 배치도와 현황 실측도를 비교분석하면 거의 정확한 평면과 입면의 치수가 계산된다.



<그림 18> 실측·보수설계도(1층 및 2층 평면도)



<그림 19> 실측·보수설계도(정면 및 좌측면도)

4. 복원도 작성

4-1. 배치

1899년 도면(배치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공사관은 언덕의 제일 높은 지점(레벨 54.3m)에 본관을 남향으로 배치하고, 남쪽으로 140m 떨어진 공관로(정동길)와 만나는 지점(레벨 37.4m)에 개선문 형태의 정문을 두었다. 정문에서 본관까지는 동측 대지 경계선 담을 따라

약 4m 폭의 가파른 진입 경사로가 약 나 있었으며, 약 170m 길이의 경사로 거의 끝 부분에는 미국공사관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길(현재는 부대사관저 내부도로)과 연결된 지점에 협문이 나 있었다.

정문을 들어서면 서측에 두 개의 건물군(기와한옥)이 약 1.5m 레벨차를 두고 있으며, 그 뒤로 넓은 마당이 있고(레벨 45.8m), 마당 우측에 한 채의 한옥, 그리고 약 8.5m 더 높은 지점(평평하게 정지된 언덕, 레벨 54.3m)에 본관과 본관의 동북측 후면에 3동의 부속건물(단순한 형태의 막사)이 배치되었고, 그 뒤편은 약 4.2m 더 높은 작은 동산(레벨 58.5m)이 있었다. 동산 바로 아래는 북쪽(새문안길)을 향해 포대 병커(엄폐진지)가 설치되었다.

레벨 45.8m의 넓은 마당은 옥외행사를 위한 광장역할을 하며, 이 마당에서 본관 정면 현관에 이르는 폭 2m의 경사로가 비스듬히 나왔다. 이 마당에서 볼 때 8.5m 더 높은 대지위에 선 본관은 매우 웅장하게 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마당의 남서쪽 구석에는 긴 건물이 보이는데 이것이 군사용 마사(馬舍)²¹⁾가 아닌가 추측된다.

공사관 초입의 정문은 개선문형식의 벽돌조 건물로 정면과 양 측면 3면이 아치로 개방되어 있고, 북측 후면에 두 짝의 문이 달려있다. 그리고 좌측에 수위실을 두었으며, 담장 너머의 첫 한옥은 정문을 통하지 않고 공관로(정동길)에서 바로 출입할 수도 있는데, 가운데 일자형 평면의 한옥과 뒤에 작은 부속채가 있다. 이 한옥은 공사관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론 임대하기도 하였던 건물이다.²²⁾

21) 배치도 상에서 일반건물과 다르게 표시되었으며, 사진 역시 긴 축사처럼 보인다. 연산군 때 '운구'라는 마장을 이곳에 두었다고도 한다.(이규태, 『이규태의 600년 서울』, 조선일보사, 1993, 33쪽 참조)

22) 1899년 당시에는 스테인 주조선 러시아공사관 통역관과 학생 막시모프, 그리고 정교회 봉독신부 크라신이



<그림 20> 구 러시아공사관의 배치도(갈색은 현황 등고선과 경계선을 표시함)

공사관 건물의 좌측익랑 부분은 현재 정동 상림원과 정동빌딩의 전면 도로 가운데 위치하고, 중앙부와 우측 익랑의 대부분은 현존하는 탑 전면의 경사지에 위치한다. 현재 남아있는 탑 주변의 초석유구와 지하통로 및 지하밀실은 호위대 막사동의 초석 및 지하통로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한옥 뒤편 1.5m 높은 대지의 한옥은 일자형 사랑채와 ㄷ자형 안채, 그리고 부속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한국인 통역관, 정교회 신학생, 정교회 사제 등이 사용하였던 건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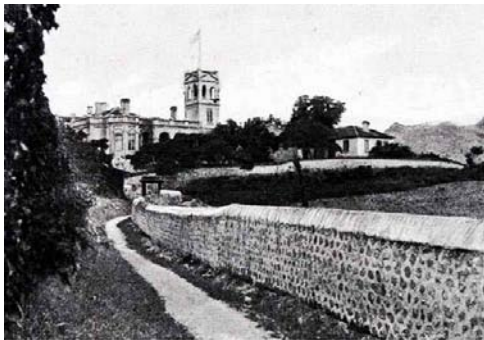
본관 남동측에 있는 한옥은 공사관 비서가

기거하였으며, (러시아에서 입수한 문서(배치도) 판독) 1901년 경 헬고 양관을 신축하였다.

사용하였으며, 공사관 북동쪽에 있는 3개의 건물(양관)은 호위대장과 호위대가 사용하는 막사로 추정된다. 당시 100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이 공사관에 상주하였다.²³⁾

23) 1897년 서울에 정교회 설립이 시급함을 지적하는 러시아공사관 외교관 폴라노프스키의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150여명의 정교회 신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다. ① 고종황제가 머무르고 있는 러시아 공사관을 지키는 한국군대의 훈련을 맡은 4명의 장교와 14명의 하

동북쪽 20m 거리의 지하밀실(7m X 4m)과 지하통로(길이 20.3m)의 유구는 바로 호위대 막사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호위대 막사와 공사관 본관을 연결하는 비밀통로로 추측된다. 그간 잘못 알려져 온 바와 같이 “아관파천 시 고종이 이 통로를 이용하였고, 통로는 경운궁까지 연결되었다”는 설은 주변을 모두 발굴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며 아관파천시의 상황²⁴⁾과 지형상태로 볼 때 경운궁과 연결된 통로로 보기에 무리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경운궁 쪽은 사방으로 10 여m 떨어지는 급경사이며, 경운궁과는 미국공사관 구역을 거쳐 250여 m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림 21> 러시아공사관과 미공사관사이 돌담길. 중간 쪽문을 나오면 경운궁과 소로로 연결됨. (아관파천 무렵의 미국사진작가 윌리엄 헨리 잭슨의 사진, 1896)

고종이 세자와 함께 노(老)대비를 예방하기 위해 몰래 경운궁에 드나들었던 통로는 공사관

동북쪽 후문에서 덕수궁으로 이어진 돌담길(현재 미대사관저와 부대사관저 사이의 소로)이 아닌가 한다. 이 길은 북쪽으로 계속 가면 새문안로 위에 가설된 경희궁 연결의 운교(雲橋)와 연결되었을 것이다.

4-2. 공사관 본관의 평면구성²⁵⁾

사진과 지도, 러시아에서 입수한 배치도, 그리고 잔존한 탑의 실측도와 보수설계도를 분석하여 평면을 복원하면 다음과 같다.

공사관 본관은 H자형 평면을 하고 있는데, 남·동·서측 3면에 아치열주가 있는 아케이드를 두어 3면 모두가 정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각각의 면에 출입문이 나 있고, 북동측 끝 모서리에 탑이 위치하고 있다.

전체 평면은 중앙부, 동·서 날개부 등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부는 가운데(중축) 정면현관-로비-복도-후문, 그리고 좌측에 공사관 사무실과 비서실이, 우측에 식당과 주방이 배열되었으리라 짐작되며, 좌측(서측) 날개부가 사생활 영역으로서 서측 출입구와 복도를 축으로 남·북쪽에 각각 거실과 침실, 그리고 침실에 연결된 화장실이 배치되었다. 동측 날개부는 남측에 베이 윈도(bay window)가 나있는 서재와 연회실, 그리고 연회실에 부속된 부속실(창고, 탑출입구)로 구성되었다. 전체 면적은 외벽 마감선으로 계산하면 752㎡(약227평)에 이른다.

아관파천 시 고종과 세자가 1년 동안 머물렀던 방은 좌측 날개부의 남쪽방으로 추정된다. 유일한 내부사진과 예비슨 박사의 글²⁶⁾을

사관 ② 공사관 무관과 부관 및 3명의 하사관 ③ 공사관 소속의 2명의 장교와 대략 90명의 하사관 ④ 러시아 학교 교사 5명과 약 30명의 통역원으로 한국정부에서 일하는 러시아 국적의 한인들(임영상, 「러시아 정교회와 한국」, 슬라브연구 132쪽 참고)

24) 을미사변 이후인 1896년 2월 11일 아침 6시 고종과 세자는 경복궁을 떠나 7시경 러시아공사관으로 들어갔다. 러시아 병사 4인이 호위했다. 러시아 공사관 정문에서 베베르공사와 이범진, 이완용 등 친러파들이 그들이 탄 가마를 맞이했다. 러시아 코사크병 300명이 경내에 포진하고 있었다.(김정동,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발언, 2004, 90쪽)

25) 평면은 러시아에서 입수한 배치도와 각종 사진, 그리고 타 공사관의 내부구조, 러시아 공관건축을 참고하여 필자가 추정·확인한 것임. 건물의 윤곽은 일제강점기의 지도와도 거의 일치됨.

26) “르네상스식으로 장식한 실의 벽은 꽃무늬 용단이 장식으로 걸려있고 중앙에 일곱 가지가 난 촛불 상들이 비춰주고 있었다. 동쪽 벽에 붙어 포장이 둘러

비교해 보면, 한쪽 벽에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용상(러시아에서는 침대겸용)이 놓여 있고 그 맞은편에 세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침대(single bed)가 있으며, 용상 우측에 돌사자가 장식된 조각, 그 뒤에 삼층장, 그리고 그 옆에 레이스로 장식된 출입문이 있고 그 옆에 테이블과 소파가 놓여있다. 벽에는 화려한 문양의 용단이 걸려있으며 천장 중앙에는 일곱 가지의 촛불 샹들리에가 달려있다.

가구크기를 감안 하면 대략 6m X 6m 정도의 규모가 추정되는데 사진을 찍은 위치에 해당하는 화장실 출입문과 거실로 통하는 문이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침대의 레이스에 가려서 안보임) 바로 이 좌측날개부의 남쪽방이 고종이 거쳐했던 방으로 가장 유력하다. 공사관의 여러 방 중에서 위치와 향을 볼 때 가장 좋은 방은 이 방과 배이윈도가 있는 동남측 끝 방인데 사진 속의 방의 크기와 형태를 감안하면 (에비슨의 글과 비교하면 향은 약간 차이가 나지만) 이 방이 더 유력하다고 판단된다. 커튼, 벽지, 바닥재, 실내조명 등은 모두 화려한 것이었고, 침대, 소파, 의자 등도 제정 러시아로부터 수입된 가구들인 것 같다.

그리고 고종의 침실에 붙은 북쪽 방은 원래는 거실용도이지만 고종을 시종드는 상궁과 엄비가 기거하였고, 밑 심부름 하는 궁녀들은 로비와 복도의 칸을 막고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넓은 소파 모양의 용상이 마련되고 그 용상 바로 앞에는 호피 한 장이 깔려 있었다. 그 용상 오른쪽에 찻잔이 놓인 삼각 받침대, 왼쪽에 돌사자의 장식 조각이, 그 뒤에 삼층 조선장이 놓여 있었다. 용상 맞바레기 서벽에 더블 침대, 그리고 남쪽 벽에 붙인 소파 세트가 임금님이 한 해 동안 기거한 거실의 전부였다.” (박형우 편, 『에비슨이 지켜본 근대 한국 42년』, 이규태, 『이규태의 600년 서울』, 조선일보사, 1993, 34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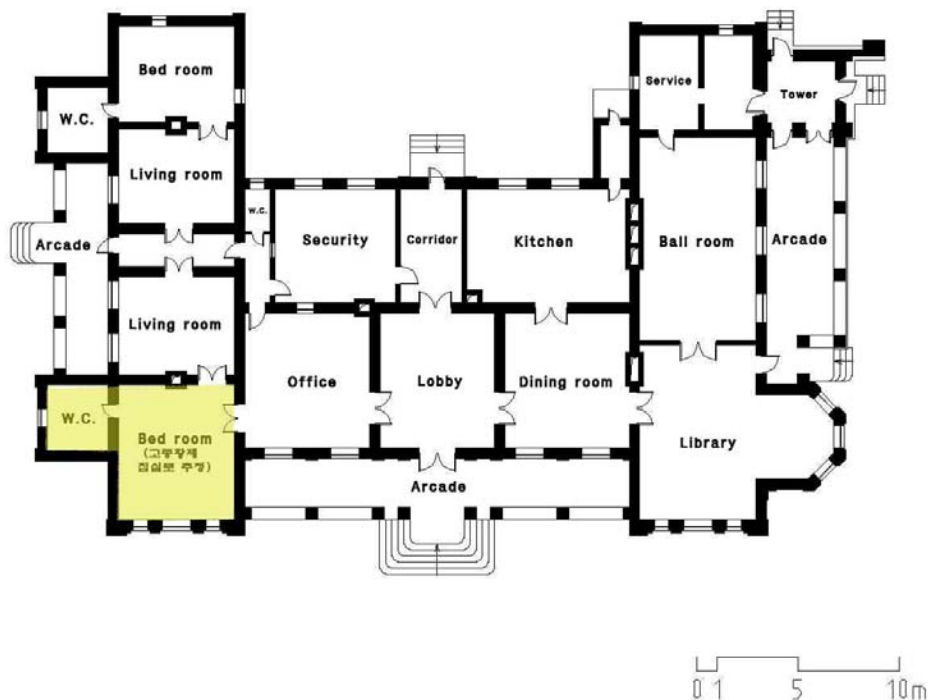


<그림 22> 러시아공사관의 고종황제의 침실

현존하는 탑은 평면의 동북쪽 우각부에 위치하는데 탑과 연결된 남아있는 지대석의 유구와 배치도를 검토하면 정확하게 위치뿐만 아니라 크기가 일치한다. 실측도에 의하면 탑의 평면은 3.95m X 3.69 m 방형에 높이 15.5m로 3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4면에 반원형 아치의 여닫이 문이 나 있는데 테라스에 면한 남측은 두 개의 문이 나 있고 하나는 쌍 여닫이 문이다.

크지 않은 공간에 5군데의 문이 나있는 것은 탑의 기능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아마도 1층은 내부에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았는지, 그리하여 본관 밖에서 바로 진입하여 탑을 오를 수 있고(동측문), 아케이드에서도 진입할 수 있으며, 내부에서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2층은 단순 벽으로(동측에만 장방형 창이 있음), 3층은 4면 모두 쌍 반원형 아치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3층은 전망대 역할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인접한 경운궁과 경희궁은 물론이고 서울 시내가 다 내려다보인다. 꼭대기는 4면 모두 페디먼트로 처리하되 옥상은 경사가 아닌 평슬라브로 되어 있고 가운데 깃대가 꽂혀 있다.



<그림 23> 평면도(색칠 부분 : 고종이 거처했던 침실로 추정)

동쪽 날개부의 연회실은 공사관 안에서 가장 큰 방(56.6㎡, 약 17평)으로 정교회 선교부 건물이 지어지고 성당이 축성(1902. 2. 17)되기 전까지 이곳에서 러시아정교회 전례를 거행하였다.²⁷⁾ 연회실 북측의 부속방(창고)은 제의실 등의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종의 아관파천 시 연회실은 병풍을 쳐 각부 대신들의 집무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4-3. 구조 및 재료

공사관 본관은 적색벽돌의 조적조 건물인데 외벽은 화강석 줄기초 위에 벽돌 2장 쌓기로 하였으며,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다. 대한제국 시에 한국에 체류했던 프랑스 고고학자 에밀 부르다레의 방문기에 나오는 ‘붉은 벽’에 대한 언급²⁸⁾ 때문에 원래는 적벽돌 노출이었는데 나중에 보수할 때 회반죽으로 마감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있지만 잔존한 탐부의 보수 공사 시 확인한 결과 원래부터 회반죽으로 마감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7) 한국·러시아정교회는 쌍뜨 삐제르부르크에 있던 러시아정교회 시노드가 한국에 관한 정교회 선교 계획을 니콜라이 II세 황제로부터 1897년에 인준을 받아 시작되었다. 선교단은 1897년 안에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한국 땅에서는 열강들의 세력 다툼이 치열했기 때문에 러시아인의 입국이 쉽지 않았다. 러시아정교회 시노드는 제2차로 선교단을 구성하였는데 1900년 초에 입국하여 같은 해 3월 2일 대순교자 웨오도라 피로나 축일에 서울 정동 러시아 공사관 구내에서 리투르기아를 봉헌했다.

28) 에밀 부르다레는 『고운 아침의 나라에서』에 러시아 공사관에 대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시내와 궁전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언덕에 자리잡은 러시아공사관은 화려한 축제에도 선보였던 근사한 정원을 끼고 있다. 건물들은 널찍널찍하고, 그 독창적 건축의 붉은 벽에 있는 베란다라는 편안해 보인다.” (정인국 역,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 글항아리, 2009, 117쪽)



<그림 24> 탐부 아치창의 조적과 회반죽 마감



<그림 25> 회반죽 몰딩 파편들

즉 아치나 몰딩부의 조적상태가 몰탈 마감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의 조악한 상태였으며, 마감줄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붉은 벽’은 아케이드 안쪽 벽²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된 벽돌은 65mm X 120mm X 250mm 규격의 러시아제 벽돌로 보인다.

지붕은 우진각 형태의 경사지붕으로 한식 기와를 엮었다.

4-4. 입면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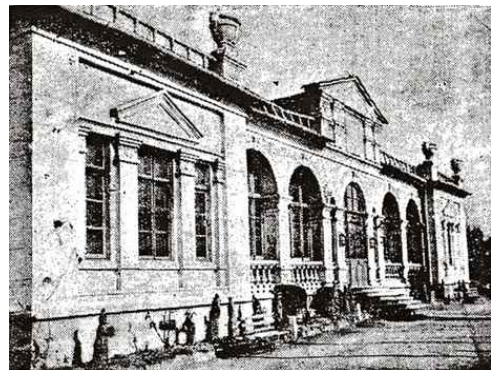
본 건물은 단층건물이지만, 1층 바닥이 바깥 지면에서 약 90cm 높고(출입구에 6단의 계단을 뒀), 정면과 양 측면은 아치열주가 있는 아케이드로 둘러싸여 있으며, 정면 중앙에는 제

정 러시아의 국장인 2두 독수리가 부조된 페디먼트가 돌출되어 있어 권위적인 건물로 보인다.

아케이드의 열주는 모두 정사각형으로서 벽감으로 장식되고, 홍예받이와 이맞돌이 뚜렷한 연속아치를 받치고 있으며, 열주 사이에는 난간동자((baluster)가 장식된 난간이 끼워져 있다. 아치 상부는 엔타블레이처로 수평선을 강조하고 그 위에 꽃병(vase) 조형물이 놓여있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이 꽃병조형물들은 열굴조각상(사자얼굴)들로 장식되어 있다. 경사지붕 위에는 굴뚝들이 솟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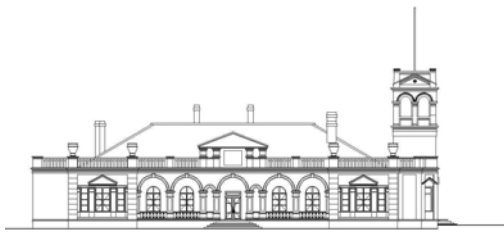
러시아 공사관의 상징인 탐의 1층은 본관상단부의 엔타블레이처와 연속적으로 이어졌고, 2층은 하나의 창으로 단순하게 처리되었으며, 3층 개구부는 4면 모두 1층의 아케이드와 동일한 형태의 반원아치를 이루고 있고, 바로 위의 상부층은 페디먼트로 장식되어 있다. 각 층을 수평 코니스로 구분하고 있다.

구 러시아 공사관은 좌우 대칭적인 입면구성(우측의 베이윈도로 완전한 대칭은 아님), 아치와 페디먼트 장식, 아케이드의 깊숙한 음영이 연출하는 건물의 장중함 등 전체적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이태리 빌라건축양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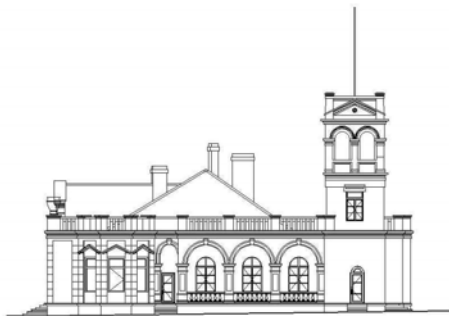


<그림 26> 구 러시아공사관 정면
(조선일보 1925. 1. 22자 신문에 게재)

29) 아케이드 안쪽 벽면은 몰딩이 없는 평탄한 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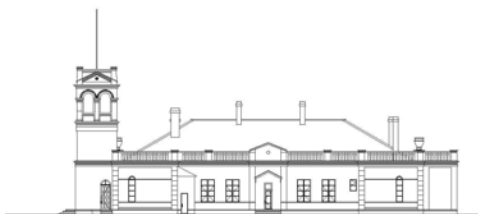
<그림 27> 남측 입면



<그림 28> 동측 입면



<그림 29> 서측 입면



<그림 30> 북측 입면

5. 결론

건물의 입지와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건축 양식보다 정치외교와 역사적인 측면에서 더 주목을 받아왔던 구러시아공사관은 극히 일부만이 남아 있지만 현존하는 벽돌조 서양식 건물로는 명동성당 구내의 구주교관(1890)과 함께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그간의 연구 성과와 새로이 발굴된 자료를 분석하여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전체 규모와 형태, 평면과 내부공간 구성, 주변 부속건물들의 배치 등을 추찰하여 보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발굴조사 등 현재의 지형과 주변변화에 대한 더욱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110년 전 정동일대의 모습을 보다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러시아공사관의 설계자인 사바쩨은 ‘유년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 상뜨-뻬제르부르그에 있었던 항해사양성 강습소를 수료하였으며, 뻬제르부르그 예술아카데미에서 1년간 야간미술강좌를 수강하면서 건축, 예술에 대한 안목을 키웠다. 그리고 러시아공사관 건물은 그동안 알려진 바와 같이 1885년에 사바쩨이 설계하여 1890년에 준공된 것이 아니라 1886-1887년間に 일본인 건축가 쯤고(Tégo)가 먼저 설계하였고, 재정문제로 착공하지 못하다가 사바쩨에 의해 1890년 7월 재설계가 완성됨으로써 지어졌다.

구러시아공사관 건물의 배치, 규모, 평면, 양식 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99년 당시를 기준하였을 때, 러시아 공사관 전체영역은 약 6,000평에 달하였다.

둘째, 당시 공사관 구내에는 공사관 본관 외에 호위대가 주둔한 3동의 막사동과 3채의 한옥과 부속채, 그리고 마사(馬舍)와 북쪽 동산

아래에 북쪽(새문안길)을 향한 포대 병커(엄폐진지)가 있었다.

셋째, 구러시아공사관은 남측 정면과 동·서측면이 아치열주의 아케이드로 둘러싸인 H자형 평면의 르네상스식 건물로 전체면적 약 227평에 이른다.

넷째, 구러시아공사관은 적벽돌 조적구조에 회반죽으로 마감하였으며, 우진각 형태의 경사 지붕에는 한식기와를 얹었다.

다섯째, 아관파천 시 고종황제는 공사관 본관 남서측 코너에 위치한 방(침실)과 연결한 방(거실)을 사용하였으며, 드나드는 대신들은 동측의 연회실(Ball Room)을 사용하였다.

여섯째, 지하밀실(7m X 4m)과 지하통로(20.3m)는 잘못 알려진 바와 같이 경운궁과 연결된 통로가 아니라 공사관과 호위대 막사를 연결하는 지하비밀 통로이다.

<참고문헌>

1. 김태영, 『한국근대도시주택』, 기문당, 2003
2. 김태중, 「개화기 궁정 건축가 사바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7호 통권 93호, 1996. 7.
3. 김정동,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발언, 2004
4. 노주석, 『제정 러시아 외교문서로 읽는 대한민국 비사』, 이담, 2009
5. 문화재청, 『20세기 초 건축물 사진실측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0
6. 에밀부르다레저, 정진국역,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 글항아리, 2009
7. 이민원, 『명성황후시해와 아관파천』, 국학자료원, 2002
8. 임영상, 「러시아 정교회와 한국 -서울 선교부의 설립과정과 초기활동-」, 슬라브

연구 제1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996

9. 이돈수, 이순우, 『꼬레아 에 꼬레아니』 100년전 서울주재 이탈리아 외교관 카를로 로제티의 대한제국건문기(1904), 하늘재, 2009
10. 홍순민 외, 『서양인이 만든 근대전기 한국 이미지 I, 서울풍광』, 청년사, 2009
11. 따찌아나 심비르쎬바(러시아국립인문대학교, 모스크바), 스페틀라나 레보쉬코(건축과 도시계획연구소, 상트 뻬쩨르부르그), 「조선국왕 폐하의 건축가 사바잔(1860-1921)」, 국제한국역사학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2009
12. 한러대화, 『다시 만나는 이웃 러시아』, KRD, 2010

접수(2010. 8. 15)

수정(1차: 2010. 11. 8)

게재확정(2010. 11. 30)

A Study on the Restoration of the Russian Legation in Jeongdong Seoul in the Latter Era of Choseon Dynasty

Kim, Jung-Shin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Valeriy A, Savostenko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Kim, Jai-Myung

(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Dongkook University)

Abstract

Old Russian Legation(1890) has been attracted public attention in terms of politics and foreign affairs than architectural style because of conditions of location and historical incident. Though it was heavily damaged during the Korean war, and only the tower has been restored, it is very important in architectural history in Korea, because it is the oldest western style brick building which is existing with the old bishop's house in Myeong-Dong.

But it has been impossible to reveal exactly the original form as there has been few reliable materials(picture, drawing, document) and it's remains were nearly destroyed owing to development of the surroundings.

Recently the decisive document(site outline map) was found, and new research on the architect Sabatine was studied. So I can get into close with the original form by the results.

In this study, I tried to conjecture the original form of the old Russian legation(the size, style, plan and indoor space, arrangement of attached facilities) and I checked the location and structure of the room where King Gojong stayed when he took refuge, and the use of the passage in the basement.

Keywords : Old Russian Legation, Sabatin, Jeongdong, Gojong
